



푸른 파도 출렁이는 중문색달해수욕장.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간혹 비가 흩뿌리곤 하지만 무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다. 무더위·열대야의 위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가족·연인과 함께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크루즈선석 1개 여객·화물선이 활용

오 지사, 접안시설 부족 어려움… 활용 방안 지시
“도민이익 최우선… 오지 않는데 비워둘 수는 없어”

도, 10월까지 준비 마무리

속보=제주자치도가 제주외항의 선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 선석을 활용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항 접안시설 부족으로 대형선박 입항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물류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한라일보의 보도(본보 7월 5일자 1면)와 관련해 최근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제주외항 크루즈 선석 1개를 여객선과 화물선 등의 선석으로 사용하라고 주문했다.

오 지사는 이날 “입항하지 않는 크루즈선박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당해서는 안되며 도민이익이 최우선”이라며 “당장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해양수산국은 관세청 등과 협의, 가능성 확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내항선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외항(상항구) 선석은 모두 25개이다. 내항 20석·외항 3석·크루즈항 2석이다. 1일 이용 선박은 40여 척이다.

제주도는 어선과 여객선 등 일반선박은 항만과 어항기능별로 선박을 수용하고 있는데 도내 7개 항만은 도지사 고시로 상항구와 어항구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외항은 상항구이다. 상항구는 어선을 제외한 여객선과 크루즈, 화물선 등이 이용하는 항구이다. 제주항에 어선이 이용하는 어항구는 선석은 4개이다.

현재 14만t급 미만의 크루즈 1척과 8.5만t급 이하 1척이 접안할 수 있는 크루즈 선석은 크루즈 운항 중단으로 어업지도선과 실습선이 이용하고 있다. 제주항의 선석이



제주항 크루즈터미널 전경. 한라일보 DB

부족하다 보니 대형여객선인 제주~여수항로를 오가는 골드스텔라(2100t급)와 제주~인천항로를 오가는 비온드트루스트(2600t급)의 동시 접안이 불가능하다.

이들 여객선들은 같은 날 운항 시 제주항에 접안을 했다가 항밖으로 이동해 대기를 하다가 다시 선석으로 돌아와 접안을 하고 있다. 선원들의 휴식시간이 줄어들고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추가 물류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2040년 준공 예정인 제주신항 준공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신항 개발은 오는 2040년까지 총 2조8662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에 외곽시설(방파제 2.82km, 호안 2.09km)과 접안시설(크루즈 4선석, 여객 9선석), 항만 배후부지(82만여㎡)와 도로(0.325km)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신항 건설에 앞서 제주항중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은 오는 10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항발전종합계획수립운영이 나오면 제주신항 예비타당성조사(1년 정도 소요)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어업보상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착공할 예정이다. 착공까지는 3~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대호기자

‘송악선언’ 기조 민선 8기서도 이어지나

오영훈 제주도정 들어 관광개발 사업 첫 제동
송악산 유원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결정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영향 줄지 ‘주목’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서 추진 중이던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이 최근 송악산 유원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결정되면서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송악산 유원지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주지사 재직 시절 송악선언을 통해 환경보전·보호 의지를 드러낸 곳으로, 오영훈 제주도정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 원 전 지사의 송악선언 정책 기조가 다른 대규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송악산 유원지) 지정안을 조건부로 원안 가결했다.

대상 지역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45번지 일원(19만1950㎡)으로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3년 이내에 일대 토지를 현재 토지주인 신해원 유한회사로부터 도가 매입하는 조건을 달았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인가는

다음 달 1일 기간이 만료돼 해제되는 가운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곳으로 중국자본의 신해원 유한회사가 3700억원을 투자해 호텔과 캠핑시설 등 상업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곳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훼손과 경관사유화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미뤄져 왔다.

이러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사 재직 시절 제주의 난개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송악산을 직접 찾아 송악선언을 발표했고, 이후 잇따라 실천조치를 내놓으며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전망돼 왔다.

특히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다른

대규모 사업에도 영향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지난 몇년간 제주지역에서 추진 중이던 제주켄스케어타운,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이호유원지, 뉴오션타운 등의 대규모 사업이 환경훼손과 지역갈등 문제로 좌초되거나 무산된 위기에 놓여지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도내의 기업들의 제주 투자 유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송악산 유원지 및 주변의 관리와 주민생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올해 말 완료 예정으로, 송악산과 주변지역의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 및 주민생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신규 895
잠정집계 24일 누계 25만8995
<17시 기준>

5 OH! GOOD JEJU

다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오 곳 제주 캠페인 우리 함께 해요!

Good Smile
우리의 미소로
더 친절한
제주를 만듭니다

Good Place
모두 함께
안전한 여행지를
만듭니다

Good Service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좋은 서비스를
만듭니다

Good Price
공정한 가격으로
투명한
여행을 만듭니다

Good Travel
다시 찾는 제주가
되기 위해
좋은 여행을 만듭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관광공사
JEJU TOURISM ORGANIZATION